

‘한국구비문학대계-개정·증보사업’ 설화의 유형적 특징 연구

김혜정(경기대학교)

I. 들어가며

1차 ‘한국구비문학대계’(1979년~1985년) 사업과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2008년~2017년) 사이에는 불과 30년의 격차가 있을 뿐이지만 실질적인 조사의 결과물에는 현격한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을 통해 조사된 설화에 대해 다양한 통계를 제시하고, ‘한국구비문학대계’의 설화 자료들과 달라진 전승 양상, 경향성, 유형적 변화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을 통해 조사된 설화를 「한국설화유형표」의 8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그 결과가 30년 전의 작업인 ‘한국구비문학대계’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통계적으로 정리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을 통해 조사된 설화 자료들은 8개 항목 중에서 선악을 주제로 한 ‘4 바르고 그르기’와 지형과 지명에 관한 설화인 ‘5 움직이고 멈추기’, 혼령과 도깨비에 관한 설화인 ‘6. 오고 가기’ 항목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1차 ‘한국구비문학대계’ 사업에서 사 비교적 많은 수의 설화가 채록되었던 3항목의 ‘속고 속이기’는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에서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수의 각편이 채록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사업 간의 30년이라는 시간의 격차와 전승환경의 변화에서 3, 4, 5, 6항목의 비중이 어떻게 달라지고, 그 비중이 다르게 된 원인과 의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의 연구 성과와 가치를 확인하고, 개선방향을 점검하여, 후속 연구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마련코자 한다.

II. 1차 ‘한국구비문학대계’ 사업의 현황 분석

1. 1차 ‘한국구비문학대계’ 사업의 경과

1차 ‘한국구비문학대계’는 1979년부터 1984년까지 전국 60개 군을 대상으로 설화, 민요, 무가, 수수께끼 등을 조사하는 사업이었다. 1979년부터 1983년까지 5년 동안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1년이 늦춰지면서 1984년에 조사가 마무리된다. 그 결과 설화는 14,941편, 민요 5,922편, 무가 375편이 조사되었고, 자료집 발간도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1980년에 ‘한국구비문학대계’ 16권이 발간한 것을 필두로, 1988년까지 모두 60개

조사지역에 대한 82권의 자료집이 간행되었다.

자료집 번호는 지역별로 9개의 권역을 나눠 매겨졌다. 서울·경기지역은 1, 강원지역은 2, 충북지역은 3, 충남지역은 4, 전북지역은 5, 전남지역은 6, 경북지역은 7, 경남지역은 8, 제주도는 9로 매겨져서 자료집이 간행되었다. 지역의 고유 번호 뒤에 줄표(-)를 곁고 새로운 번호를 매기어 각 권역 내의 구체적인 조사 대상지역을 나타냈다. 가령 1-1권은 서울·경기지역의 도봉구에서 조사된 자료집이며, 2-1은 강원도 지역의 강릉시·명주군에서 조사된 자료집이다. 전체 조사 대상 지역이 60곳이기 때문에 조사보고서가 60권이여야 하겠으나 경북 경주시·월성군 지역(7-1, 7-2, 7-3)이나 전남 화순군 지역(6-9, 6-10, 6-11) 등에서는 조사된 자료가 많아 자료집이 각각 3권씩 간행되기도 하면서 전체 82권의 자료집이 발간되기에 이른다.

자료집 발간 사업과 더불어 조사된 자료에 대한 분류와 색인 작업도 함께 진행되었다. 자료집과 별도로 『한국구비문학대계:별책부록(I)한국설화유형분류집』(1989), 『한국구비문학 대계:별책부록(II)한국설화색인집』(1989), 『한국구비문학대계:별책부록(III)한국민요·무가유형 분류표』(1992)이 각각 편찬되어 자료의 검색과 활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2. 1차 ‘한국구비문학대계’ 설화의 유형분류체계

1차 사업에 참여한 담당하 조동일 이하 연구진들은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수록된 설화를 대상으로 삼아 한국 설화 전반을 바람직한 원리에 따라 무리 없이 분류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당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민속문학계에서는 안티 아르네(Antti Aarne)와 스티스 톰슨(Stith Thompson)의 『민담유형(The Types of the Folktales)』, 스티스 톰슨(Stith Thompson)의 『민속문학 화소색인(Motif Index of Folk Literature)』을 활용하여 설화를 분류하고 있었다. 그러나 AT분류법은 몇 가지 한계 또는 결함으로 우리 설화의 분류 체계로 적합하지 않았다. 우선, AT분류법은 인도에서 아일랜드까지 서양 민담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보편성이 결여되어 있고, 신화와 전설을 포함하지 않은 분류체계이며, 또한 새로운 유형을 추가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일정한 원리가 없는 편의상의 분류라는 점이 한계로 여겨졌다.

이에 따라 1차 사업 연구진들은 자료를 귀납적으로 정리하면서 일정한 원리를 발견하고, 그 원리의 타당성을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과정을 통해 「한국설화유형분류표」를 제시하였다. 먼저 조사된 자료들 중에서 설화와 설화 아닌 것을 구분하고, 설화는 분류항목 1부터 8까지로 분류하고, 설화가 아닌 것은 9에 소속시켰다. 설화만을 분류대상으로 하되, 모든 설화는 주체(주인공)가 특이한 설화와 상황이 특이한 설화로 나누어 주체가 특이한 설화는 1에서 4까지에, 상황이 특이한 설화는 5에서 8까지에 소속시켰다. 1부터 8까지 각 항목은 항목에 속하는 설화의 특징에 따라 1항목은 ‘이기고 지기’, 2항목은 ‘알고 모르기’, 3항목은 ‘속이고 속기’, 4항목은 ‘바르고 그르기’, 5항목은 ‘움직이고 멈추기’, 6항목은 ‘오고 가기’, 7항목은 ‘잘되고 못되기’, 8항목은 ‘잇고

자르기'라고 명명하였다.

1부터 8까지는 1단계 상위유형이며, 각 상위 유형은 음양의 원리에 따라 2개로 나누어지고, 다시 서두와 결말의 일치와 불일치 원리에 따라 다시 2개로 나뉘짐으로써 총 32개의 2단계 상위유형을 구성한다. 2단계 상위유형은 다시 100단위 3단계 상위유형으로 나뉘지고, 3단계 상위유형 아래 최종적으로 유형이 존재한다. 3단계 상위유형의 번호와 유형의 번호 사이에는 줄(-)을 표시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단계 상위유형 : 1 이기고 지기

2단계 상위유형 : 11 이길만해서 이기기

3단계 상위유형 : 111 신인이 출현해 건국시조 되기

- 유형 :
- 111-1 자기 스스로 하강한 건국시조(환웅, 해모수)
 - 111-2 하강한 것에서 태어난 건국시조(혁거세, 수로)
 - 111-3 하강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건국시조(단군)
 - 111-4 땅에서 솟아오른 건국시조(삼성혈)
 - 111-5 바다에서 떠내려 온 건국시조(석탈해)

3. 1차 '한국구비문학대계' 설화의 유형별 현황

「한국설화유형분류표」에 근거하여 1차 사업으로 조사된 14,941편의 설화는 8개의 1단계 상위유형 내의 총 1037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각 항목별 유형의 종류, 각편의 수, 항목별 비율, 항목 순위 등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1> 1차 '한국구비문학대계' 항목별 유형, 각편, 비율, 순위 통계

	1	2	3	4	5	6	7	8	총합
유형의 수	73	194	127	229	95	117	175	27	1037
각편의 수	782	3288	1820	3693	1611	1451	2165	131	14941
각편 비율	5.2%	22.0%	12.2%	24.7%	10.8%	9.7%	14.5%	0.9%	100%
순위	7	2	4	1	5	6	3	8	

위의 표를 보면 각 항목은 각각 그에 포함된 유형의 개수에 비례해서 각편의 개수가 많고 적음을 알 수 있다. 즉 유형의 종류가 많은 항목은 그에 해당하는 설화 자료의 수(각편)도 많다. 가장 많은 유형의 종류를 지닌 것은 4항목이며, 또한 4항목이 가장 많은 각편의 수를 보유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8항목은 유형의 종류가 가장 적어서 27종에 불과하며 각편의 수도 가장 적어서 131개에 불과하다.

각 항목별 각편의 수에 따른 순위를 보면, 4, 2, 7, 3, 5, 6, 1, 8의 순서이다. 이러한 순서는

우리나라 민중들이 4항목에 속하는 설화들을 가장 많이 향유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며, 그 뒤를 따라 2, 7, 3, 5, 6항목의 순으로 대중성이 높은 설화들임을 알 수 있다. 이 항목들에 속하는 설화는 어떤 내용이며, 대중성이 높은 이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민중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구연하고, 향유하는 4번 항목은 선인과 악인, 기인에 관한 이야기이다. 대표적으로 「하늘이 아는 효성」, 「지렁이국으로 봉양한 며느리」, 「콩쥐팍쥐」, 「처녀 구한 두꺼비(지네장터)」, 「소경 부부의 성행위」, 「방귀쟁이 며느리」 등이 이에 속한다. 흔히 충신, 열녀, 효녀와 효자에 관한 이야기들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소경 부부의 성행위」나 「방귀쟁이 며느리」는 이와는 좀 다른 유형의 설화들이다. 각각 어리석은 부부가 성행위를 벌이는 기행적인 과정, 현숙해야 할 며느리가 시집에서 방귀를 끼면서 벌어지는 소동을 해학적으로 그리면서 청중에게 웃음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흔히 소화(笑話)라는 불리는 설화 유형이다. 그러나 4항목 중에서 이러한 소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다. 4항목의 전체 3693편의 각편 중에서 소화는 449편으로, 12.1% 정도에 머문다.

결국 4항목에 속하는 대부분의 설화는 열녀, 충신, 효자, 효부 등이 열, 충, 효, 불효, 보은 등을 실천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열, 충, 효는 조선 시대의 정치, 사회, 도덕의 근본이념이었던 유교가 가장 중요시하던 이념이자 덕목이며, 현재까지도 우리 민족에게 아주 중요하게 인식되는 가치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교 이념과 덕목을 주제로 한 4항목 설화들이 우리나라 설화의 가장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설화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민중들이 향유하던 구비문학의 세계에서도 유교의 영향이 강하게 남아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대중에게 인기가 있고 활발히 전승되는 2항목은 신령과 이인, 바보에 관한 이야기들이다. 「죽을 사람 구한 신령」, 「명풍수 이야기」, 「명의 이야기」, 「반쪽이」, 「아지담(兒智談)」, 「바보신랑」, 「떡보와 사신」 등이 이에 속한다. 민중은 자신들이 겪는 온갖 어려움과 고난을 나라의 위정자들이나 관아의 수령들이 해결해준다고 믿지 않는다. 2항목에 속하는 설화에서 민중들은 자신들의 아픔과 고통을 속속들이 알고 해결해주는 존재로 신령과 이인을 등장시키고 있다. 신령은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주기도 하며, 과거에 연거푸 떨어져 자살하려는 서생의 목숨을 구해주기도 하고 병을 낫게도 하고 도둑을 잡아주기도 하는 존재로 등장한다. 이인들은 민중들과 더불어 살던 풍수, 명의, 점쟁이 등으로 등장해 발복하는 뒷자리를 잡아주고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살려내고, 호환에 죽을 운명인 소년의 운수도 바꿔준다. 또한 2항목에는 가족관계에서 투르거나 세상물정을 몰라 실수를 남발하는 바보신랑, 바보아내, 바보원님 등에 관한 이야기도 포함된다. 때론 이러한 바보들이 알고 보니 이인이었더라는 내용의 설화도 여기에 포함된다.

신령과 이인은 비일상적이고 특별한 방법으로 인간의 힘겨운 삶의 문제를 놀랍도록

명쾌하게 해결해 준다면, 바보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담으로 포복절도의 즐거움으로 인간이 짊어진 삶의 무게를 한 순간 잊게 해준다는 점에서 묘한 공통점이 있다. 바보 이야기에서는 공감과 웃음을 얻을 수 있다면, 신령과 이인 이야기에서는 희망과 위안을 얻었을 것이다. 민중은 이인에 대한 희망과 기대, 위안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것은 수치적으로도 확인된다. 2항목으로 분류된 3288개의 각편 중에서 신령과 이인에 관한 이야기가 2914편이며, 바보 이야기는 374개이다. 각각의 비율은 88.6%와 11.4%로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인기가 있었던 7항목은 대체적으로 행운과 불행에 관한 이야기로, 「복 타러 가는 여행」, 「내 복에 산다」, 「선녀와 나무꾼」, 「삼년고개」, 「두더지 혼인」, 「이야기로 장가들기」, 「호환 면하고 장가들기」 등이 이에 속한다. 이 유형에 속하는 설화들에는 민중과 비슷한 처지의 인물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늙도록 혼인을 하지 못한 총각과 처녀, 갖은 노력에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하층민, 아버지에게 버릇없이 굴었다가 쫓겨난 딸, 너무 게을러서 쫓겨난 아들, 집을 떠나야만 단명 팔자를 면하는 아이 등등이 그들이다. 이들은 아주 우연한 기회, 친구의 도움, 순간의 기지, 뜻밖의 횡재 등을 통해 행운을 얻고 부자가 되고 혼인에 성공한다. 배부르게 먹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최대의 희망이었을 민중에게 7번 항목의 이야기들은 복권당첨처럼 실현가능할 것 같은 꿈을 심어주는 원천이었을 것이다.

7항목의 제목인 '잘되고 못되기'처럼 이 항목에 속하는 이야기는 결말이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로 끝이 나는 해피엔딩이거나 그 반대로 극명하게 나뉜다. 7항목의 아래의 2단계 하위항목은 '71 잘될 만해서 잘 되기', '72 잘될 만한데 못되기', '73 못될 만한데 못되기', '74 못될 만해서 못되기'로 구성되는데, 71과 73이 행운을 얻은 주인공이 해피엔딩하는 결말이라면 72와 74는 주인공이 불행해지는 결말이다. 7항목 전체 각편의 수가 2165편인데, 해피엔딩의 결말은 1726편이라면, 불행해지는 결말은 439편이다. 각각 79.7%와 20.3이다. 민중은 주인공이 불행해지는 이야기보다 주인공이 행복해지는 이야기를 더 적극적으로 구연하고, 향유함으로써 더 희망적인 미래를 꿈꾸었다고 할 수 있겠다.

네 번째로 대중성이 있던 3항목은 특정한 목적이나 이득을 얻기 위해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암행어사, 사기꾼, 건달 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야기이다. 잘 알려진 이야기로는 「암행어사 박문수」, 「불운한 선비에게 과거문제 알려줘 급제시킨 숙종대왕」, 「봉이 김선달」, 「주인 양반 놀리는 피쟁이 하인」 등이 3항목에 속하는 설화들이다. 이 항목의 설화들에서 암행어사 박문수, 잠행 중인 숙종대왕 등은 민초들의 곤란과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존재로 등장한다. 이들은 자신의 신분을 속인 채 낮이 아니라 밤에 돌아다니며 공공의 장소나 관아가 아닌 백성의 집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이러한 방식은 위정자 집단 전체가 부정부패로 타락해서 민중은 더 이상 공적인 힘을 믿지 못한다는 인식의 결과이다. 그럼에도 동시에 올바른 소수의

위정자들이 있어 백성의 곁에 다가와 자신들의 힘겨움을 알고 이를 해결해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내포되어 있다고 하겠다. 정치 집단의 부패가 극심해져서 나라의 지배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한 조선 후기의 사회상이 이러한 유형의 설화들이 발생하게 된 배경인 것이다.

또한 정치와 사회가 부패하고 흔들리면서, 땅을 근간으로 한 농경사회가 점차 와해되어 농민들은 떠돌이 신세가 되어 점점 도시로 몰려든다. 이러한 현상이 원인이 되어 공고했던 신분제에까지 균열이 일어나 도시에는 떠돌이, 한량, 사기꾼, 건달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김삿갓, 정만서, 방학중, 정평구 등이며 이들이 속임수로 민중을 속여 이득을 차지하는 이야기들도 3항목에 속한다. 또한 3항목에는 신분제가 위태로워지면서 권위를 잃은 양반을 하인이 놀리는 이야기들도 속하며, 이들 이야기는 조선 후기에 발생하여 민중에게 꽤 많은 사랑을 받은 설화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섯 번째로 대중들이 즐겨 향유하던 5항목 설화들은 자연물, 인공물과 관련한 이야기이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쌀 나오는 구멍」, 「망부석」, 「용이 만들어 준 유금이뜰」 등과 지형유래담, 지명유래담이 이에 속한다. 대체적으로 민중들이 사는 마을과 산과 들, 강의 형태와 지명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를 설명하는 설화들로 전설적 성격이 강한 설화들이다. 땅과 농사를 근본으로 삼는 전통사회에서 민중들은 평생토록 자신이 태어난 고장을 벗어날 일이 없기에 민중들이 자신이 사는 고장에 관한 역사와 정보에 대해 갖는 관심이 반영된 이야기들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섯 번째로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6항목은, 동물 변신담, 귀신, 도깨비, 혼령 등에 관한 이야기로, 「송아지로 태어난 사람」, 「구렁덩덩신선비」, 「여우누이」, 「도깨비」, 「아랑전설」, 「저승여행담」, 「제삿날이면 오는 혼령」 등이 이에 속한다. 민중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호기심을 해소하기 위해 귀신과 도깨비, 혼령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내어 탐색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1, 8항목에 속하는 설화들은 대중들이 비교적 드물게 구연하거나 덜 즐겼던 유형의 설화들로 볼 수 있다. 1항목은 대체적으로 건국신화, 시조신화, 당신화, 영웅신화, 영웅전설 등에 관한 설화들이다. 「주몽신화」, 「바리공주」, 「지하국대적퇴치설화」, 「아기장수」 등이 이에 속한다. 원시시대에서부터 고대국가 건국 시기 사이에 발생하여 지배집단에 의해 향유되던 신화는, 중세와 근대로 이어지는 시기에는 공식적으로 부정되고, 점차 무속사제자 집단이 전유하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신화가 갖는 이러한 향유계층의 제한성과 신이성으로 인해, 신화는 민중들의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거나 향유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이 현재 여덟 종류의 설화 항목 중에서 가장 대중성이 떨어지는 설화 유형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었다.

8항목은 일반적으로 형식담이라고 부르는 것들로, 언어유희와 같은 말장난, 수수께끼를 포함하여 「도둑 쫓은 이야기」, 「쥐가 한 마리씩 강을 건너기」, 「새빨간 거짓말」,

「꼬부랑할머니」, 「이야기는 이 야기」 등이 이에 속한다. 8항목에 속하는 설화들은 서사보다는 이야기의 형식이 특징적인 것들이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길이가 짧고 말장난처럼 여겨지며, 어른들도 못지않게 아이들이 주요한 향유층이 된다. 일상에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자주 구연되나, 그 종류가 한정되고, 이야기 형식도 대체적으로 고정되어 있어 변이가 다양하게 일어나지 않으면서 각편의 수가 한정적으로 보고된 것으로 보인다.

Ⅲ.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 사업의 현황 분석

1.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 사업의 개요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 사업은 1980년대의 1차 사업의 성과를 잇고, 이를 질적·양적으로 풍부하게 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2008년 11월 1일에 시작되어 2018년 10월 31일에 마감하게 되며, 1단계 3년(2008년 11월 1일~2011년 10월 31일), 2단계 3년(2011년 11월 1일~2014년 10월 31일), 3단계 4년(2014년 11월 1일~2018년 10월 31일)으로 구성하여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개정증보' 사업은 현장조사팀, 연구개발팀, 디지털편찬팀이 참여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현장조사팀에서는 구비연행현장을 방문하여 자료의 조사, 채록, 정리를 담당하고, 연구개발팀은 조사된 자료를 검토하고 분류하는 작업을 담당하며, 디지털편찬팀은 자료의 데이터집적과 관리를 위한 관리시스템(구비누리) 개발과 운영, 자료에 대한 인쇄출판 등을 담당하고 있다.

2008년 11월 1일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 9년 동안 조사대상지역은 총 110곳(시/군)이며, 이 중에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중국 길림성 이상 3곳의 해외지역도 포함되어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표2>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 사업 현장조사 지역(2008~2017년)

행정구역(도)	조사지역(시, 군)	합계
경기도	가평, 김포, 안산, 이천, 파주, 포천, 고양, 과천, 광명, 광주, 구리, 양주, 부천·시흥, 평택, 군포, 오산, 하남, 동두천, 성남, 의왕·안양, 연천군	21
강원도	평창, 홍천, 원주, 정선, 고성, 철원, 동해, 인제, 태백, 화천, 양구	11
충청북도	제천, 음성, 진천, 괴산, 증평, 청주, 보은, 옥천	8

충청남도	금산, 논산, 서천, 예산, 홍성, 계룡, 서산, 청양, 천안, 대전, 연기, 태안	12
전라북도	무주, 진안, 익산, 장수, 임실, 순창, 고창, 김제	8
전라남도	영광, 광양, 담양, 구례, 나주, 여수, 강진, 곡성, 무안, 영암, 장흥, 목포, 순천, 완도군, 광주	15
경상북도	청도, 청송, 포항, 문경, 의성, 울진, 경산, 고령, 칠곡, 영양, 영주, 영천, 울릉군, 김천	14
경상남도	양산, 합천, 통영, 함양, 부산, 남해, 창원, 함안, 고성, 마산, 사천, 산청, 진해, 창녕	14
제주도	제주시, 조천, 한경, 한림	4
해외지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중국 길림성	3

2008년 11월 1일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 9년 동안 조사된 총 자료의 양은 원고지 399,513.4매에 이른다. 민요 37,753.7매, 설화 90,776.8매, 무가 1,759매를 포함하여 그밖에 기타 자료, 마을 정보, 제보자 정보에 대한 기록까지 모두 포함한 수치이다.

2. '개정증보' 사업 설화의 유형별 분포 현황

'개정증보' 사업은 현재 3단계 4차년도 사업(2017.11.1~2018.10.30.)이 진행 중이다. 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자료 정보에 대한 데이터 정리와 결산도 진행 중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전체 10년 사업기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2008년 11월 1일부터 2012년 10월 30일까지 조사된 자료 중에서 설화만을 대상으로 삼아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개정증보' 사업의 5년 동안(2008.11.1~2012.10.30.) 조사된 자료의 총량은 원고지 191,208.9매에 이른다. 민요 20,858.6매, 설화 43,358.8매, 무가 1,299매와 그밖에 기타 자료, 마을 정보, 제보자 정보에 대한 기록까지 모두 포함한 수치이다.

본 연구의 대상인 설화의 경우, 원고지 매수로는 43,358.8매인데, 자료(각편)의 수로는 9404편으로 확인된다.

본 연구자가 참여한 '개정증보' 사업의 연구개발팀에서는 9404편 설화 자료에 대한 유형분류 작업을 진행하였다. 1차 '한국구비문학대계' 사업의 결과로 마련된 '한국설화유형분류표'를 기준으로 9404편의 설화 자료에 대한 유형분류 작업을 진행한 결과 각 연도별, 유형별 각편의 수는 다음과 같다.

<표3>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 사업 연도 및 유형별 설화 각편 통계

	2008~2012년 각 유형별 설화 각편 통계
--	---------------------------

유형	1	2	3	4	5	6	7	8	기타	합계
2008년	106	222	86	346	408	271	201	18	276	1934
2009년	102	199	76	318	396	260	186	16	276	2086
2010년	87	180	65	320	465	311	171	13	311	1923
2011년	57	154	64	286	504	281	110	7	518	1981
2012년	39	131	42	323	217	260	133	19	316	1480
총합	380	965	325	1670	2061	1464	773	86	1680	9404

위의 수치를 바탕으로 각 유형별 각편의 수와 전체 비율을 정리해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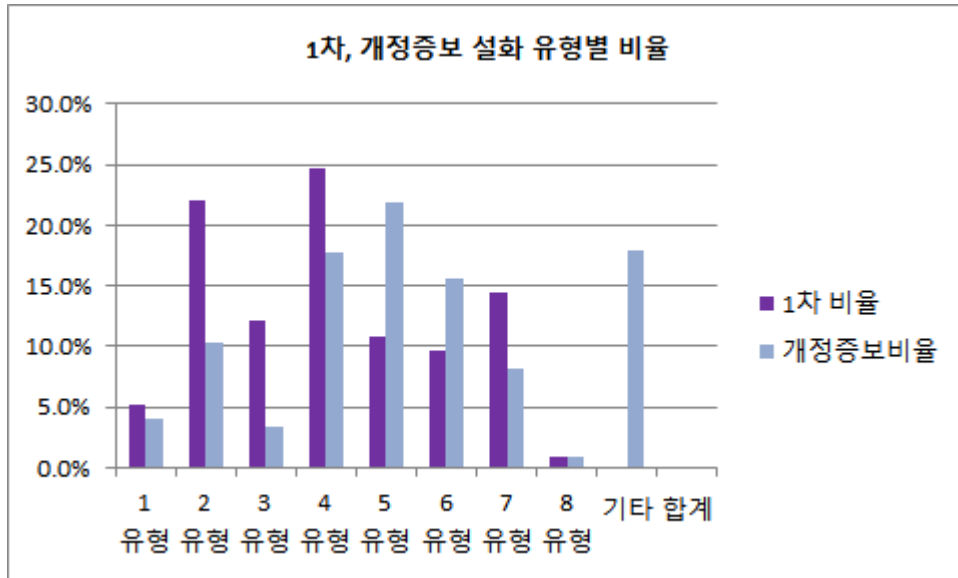
<표4> 2차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 사업 유형 및 각편 통계

	1	2	3	4	5	6	7	8	기타	총합
유형의 수	73	194	127	229	95	117	175	27		1037
각편의 수	380	965	325	1670	2061	1464	773	86	1680	9404
각편 비율	40%	103%	35%	178%	219%	156%	8.2%	0.9%	17.9%	100%
순위	6	4	7	2	1	3	5	8		

위의 표를 보면 1단계 상위유형인 1~8 항목에 속하는 유형의 수와 각편의 수가 비례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1차 사업의 통계와 전혀 다른 결과이다. 1차 사업 설화 자료의 경우, 1~8항목은 4>2>7>3>5>6>1>8 순서로 유형의 수가 많았고, 동일한 순서로 각편의 수도 많았다. 그런데 '개정증보' 사업에서는 5>4>6>2>7>1>3>8 순서로 각편의 수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5> 1차 사업 및 개정증보 사업 설화의 항목별 각편 수량 순위 변동

	1	2	3	4	5	6	7	8
1차 사업 순위	7	2	4	1	5	6	3	8
개정증보 사업 순위	6	4	7	2	1	3	5	8
변동 사항	1단계 상승	2단계 하락	3단계 하락	1단계 하락	4단계 상승	3단계 상승	2단계 하락	변동 없음



위의 표를 통해, 1차 사업 통계와 비교했을 때 항목의 순위 변동이 크고 작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8항목은 순위 변동이 없다. 1, 5, 6 항목은 순위가 올라갔고, 2, 3, 4, 7 항목은 순위가 하락했다. 그중에서도 3, 5, 6 항목의 변동의 폭이 커서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4항목의 경우, 1차 사업에서는 1순위였고 '개정증보' 사업에서는 2순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도 눈여겨볼만하다. 30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4항목에 속하는 설화 유형이 여전히 대중들이 가장 즐겨 구연하고 있는 설화라는 점도 특기할만하다.

8개 항목의 순위 변동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개정증보' 사업은 1차 사업이 이루어진 이후 30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진행되었다. 그간 도시에서 농촌에 이르기까지 사회, 경제, 문화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전통문화의 심각한 쇠퇴와 변화, 붕괴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영향은 구비문학에까지 미쳐 설화, 민요, 무가를 구연하고 즐기는 구비문학연행현장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각 가정은 물론, 지역공동체 사람들이 모이는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에서도 더 이상 설화나 민요를 구연하지 않는다. 이제 사람들이 모이면 TV 시청을 하거나 최신 유행가를 부르거나, 혹은 게임과 화투와 같은 놀이를 하는 것이 더 일반화되어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전반적으로 구비문학 자료를 구연하고 감상하는 기회가 현격하게 줄면서 구비문학 자료를 수집하고 채록하는 작업이 쉽지 않다. 간혹 구비문학 자료를 구연할 수 있는 제보자를 만나더라도 너무도 오랫동안 구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한 서사전개를 지닌 설화, 온전한 음조와 가락을 지닌 민요를 구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조사된 설화 자료 개개의 각편에서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이야기의 길이는 매우 짧아졌으며, 주인공과 주변 인물의 특징과 역할이 혼선을 빚거나 결말이 전혀 다르게 전개되는 방식으로 설화가 구연된다.

또한 사회, 문화, 경제의 변화로 인한 구비문학 연행현장의 붕괴는 설화 개개의 각편에

대한 영향을 넘어 좀 더 넓은 영역에서 설화 유형의 전체의 변화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5>에서 본래 유형의 특성상 변화가 일어나기 쉽지 않은 형식담에 해당하는 8항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항목의 순위가 변했다는 것은 이러한 변화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만약 항목의 순위가 변동이 없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의문스럽고 문제가 될 수 있다고도 하겠다. 그래서 1, 2, 4, 7 항목들이 1~2단계의 순위 변동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3~4단계씩 큰 폭의 순위 변동이 일어난 3, 5, 6 항목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3. '개정증보' 사업 설화 유형의 순위 변동에 대한 의미 분석

앞서 확인했듯이 1차 사업과 '개정증보' 사업의 설화 항목 중에서 가장 변동이 큰 항목은 3, 5, 6항목이다. 3항목은 1차 사업에서 4위였으나 '개정증보' 사업에서는 7위에 위치해 있다. 1차 사업 당시만 해도 8개 항목 중에서 4위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대중이 즐겨 구연하던 설화 유형이었다. 그런데 8위를 차지한 8항목이 본래 유형의 종류가 한정적이어서 각편의 수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을 감안한다면 3항목은 2008년 이후에는 대중이 가장 기억하지 못하거나 혹은 대중이 가장 즐겨하지 않는 설화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3항목이 왜 이렇게 급격한 추락을 겪었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3번 항목에 속하는 설화들은 특정한 목적이나 이득을 얻기 위해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암행어사, 사기꾼, 건달 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야기이다. 이에 속하는 이야기로 가장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것은 「암행어사 박문수」, 「잠행하는 숙종대왕」, 「봉이 김선달」, 「주인 양반 놀리는 꾀쟁이 하인」 등이 이에 속한다. 민중의 겪는 어려움과 속사정을 암행어사, 미복을 한 채 잠행하는 숙종대왕 등이 해결해주는 이야기, 또는 나라의 지배질서가 흔들리게 되자 온갖 사기꾼이 등장해 민중을 속여 이득을 취하기도 하고 신분제가 위태로워지면서 권위를 잃은 양반을 하인이 놀리는 이야기들도 민중에게 꽤 많은 사랑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3항목에 속하는 설화들이 갖는 이러한 성격이 오늘날에는 스스로의 생명력을 고갈시키는 요소로 작용했으리라 보인다. 3항목은 전제왕권국가의 무능하고 부패한 공권력을 비판하고 신분제의 모순을 꼬집는 것을 주제로 한 설화들인데, 오늘날의 현실은 이미 전제왕권국가가 무너지고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신분제는 이미 100년도 더 전에 사라지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주제가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설화라는 구비문학 갈래가 본래 민중의 꿈과 희망을 그리는 허구적 서사이다. 그러나 설화의 허구는 현실세계를 바탕으로 긴장감과 재미를 구축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설화의 허구 세계를 떠받치고 있는 현실의 전면적 변화가 설화의 허구세계에 대한 심각한 변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에 1~8항목의 어느 항목이 영향 받지 않을 수 없겠으나 전제왕권국가와 신분제를 주요한 제재로 삼고 있는 3번 항목이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 것 또한 사실이다.

그 다음으로 5, 6항목의 변화가 주목된다. 5, 6항목은 1차 사업 당시 전체 설화들 중에서 5위와 6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민중들이 덜 선호하는 설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개정증보' 사업에서는 전체에서 1위와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제보자들이 가장 많이 구연하고 있는 설화 유형이 되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무엇이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5항목 설화들은 자연물, 인공물과 관련한 이야기이다.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설화로는 「병을 치료해주는 약수」, 「쌀 나오는 구멍」, 「망부석」, 「용이 만들어 준 유금이뜰」 등이 있다. 또한 마을 주변의 산과 강, 벌판과 바위가 어떠한 모양이나 이름을 갖게 된 내력을 밝히는 지형유래담, 지명유래담도 이에 속한다. 이러한 5항목 설화들은 민중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고장과 지역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출발하며, 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주변과 관련된 지형유래담, 지명유래담을 공유하고 있을 정도로 보편적인 설화들이다. 그럼에도 1차 사업에서는 전체 설화 중에서 비중이 5위에 머물고 있었다. 그런데 '개정증보' 사업에서는 그 순위가 4계단이나 상승해서 제보자들이 가장 많이, 가장 대중적으로 구연하는 설화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현상을 5항목에 속하는 설화 유형들이 1차 사업 당시보다 대중들에게 더 각광받는 설화 유형으로 성장한 것으로 해석하면 곤란하며, 연구 결과 다른 원인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었다. 1차 사업 당시 2, 3, 4, 7항목은 가장 자주, 가장 많이 구연되는 설화 유형들이었다. 그런데 30년의 세월 동안 구비문학 연행현장이 파괴되어 2, 3, 7항목의 설화들은 급격하게 전승의 생명력을 잃어갔다.

반면에 5항목 설화 유형들은 비교적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전승이 이어져 내려왔다고 할 수 있다. 5항목이 다른 항목보다 전승의 생명력이 더 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5항목이 지닌 특징에서 기인한다. 5항목은 대체로 지명전설, 지형전설 등인데 이러한 전설들은 특정 지역의 특정한 산, 마을, 바위, 강, 언덕 등과 같은 증거물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생명력이 강하다. 그 증거물에 해당하는 지형이나 지명이 존재하는 한 해당 지형과 지명에 대한 전설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이러한 현상은 통계적으로도 확인된다. 1차 사업에서 5항목은 총 1720편이 조사되었다. 그중에서 지명유래담에 해당하는 '543 사람은 가고 지명남기' 492편이 조사된 것으로 확인된다. 5항목 전체에서 지명유래담이 28.6%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정증보' 사업에서 5항목은 총 2061편이 조사되었다. 2061편이라는 수치는 10년 기한인 '개정증보' 사업 중에서 전반기 5년 동안에만 조사된 수치인데, 이미 1차 사업의 수치를 넘었다. 2061편 중에서 지명유래담에 해당하는 543유형은 1091편이 조사되었다. 5항목 전체에서 지명유래담이 56.9%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제보자들은 서사가 길고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고 복잡한 사건들이 얽힌 2, 3, 4, 7항목 설화들보다는 자신의 살고 있는 주변 지역에 증거물이 남아있고 서사도 짧고 단순한 지명전설, 지형전설을 더 자신

있게 구연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6항목의 3단계 상승도 비슷하면서도 다른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1차 사업 당시 6항목의 비중은 6위에 머물고 있었는데, '개정증보' 사업에서는 그 비중이 3위로 상승했다. 30년 사이에 6항목에 속하는 설화 유형이 더 성장하고 더 활발히 전승되었다고 보다는 어렵다. 오히려 2, 3, 4, 7항목이 급격한 쇠퇴를 겪은 것과 비례해서 6항목은 덜 쇠퇴하면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6항목 설화 유형들이 덜 쇠퇴할 수 있었던 원인도 6항목이 지닌 특징에서 기인한다.

6항목은 동물 변신담, 귀신, 도깨비, 혼령 등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 항목에 속하는 설화 중에서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설화들로는 「송아지로 태어난 사람(금송아지)」, 「구렁덩덩신선비」, 「여우누이」, 「도깨비」, 「아랑전설」, 「저승여행담」, 「제삿날이면 오는 혼령」 등이 있다. 6항목에는 변신, 환생과 같은 판타지적인 제재의 설화들도 포함되지만 죽음과 사후 세계에 대한 민중들의 관심과 상상력이 빚어낸 이야기들이 이 항목의 핵심을 이룬다. 민중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호기심을 해소하기 위해 귀신과 도깨비, 혼령, 제사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내어 탐색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6항목이 제재로 삼고 있는 죽음과 사후세계, 영혼과 혼령, 귀신과 도깨비, 제사 등은 우리 민족의 민간신앙과 전통의식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러한 신앙과 의식은 종교와 같아서 시간의 흐름과 환경의 변화에도 좀처럼 잘 변하지 않는 속성이 있다. 따라서 6항목 설화의 비중이 1차 사업에 비해 '개정증보' 사업에서 커진 것은 6항목에 속하는 설화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종교적, 보수적 특징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제보자들은 2, 3, 4, 7항목처럼 여러 인물들이 갈등하며 우여곡절을 겪는 긴 서사의 이야기들에 대한 기억은 좀처럼 완벽하게 복원하지 못할지라도 저승을 갔다왔다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도깨비를 보았다는 이야기, 죽은 혼령이 제삿날이면 제삿밥을 먹으로 오기 때문에 경건해야한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게 구연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수치적으로 확인된다. 6항목 중에서도 도깨비는 '634 도깨비와 어울리다 정신 차리기', 혼령은 '643 혼령의 세계 인정하기' 유형에 분류되어 있다. 1차 사업에서 6항목은 총 1503편 조사되었다. 이중에 634 유형은 212편, 643 유형은 237편이며, 도깨비와 혼령 이야기는 도합 449편에 이른다. 6항목 중에서 29.8%에 해당한다.

'개정증보' 사업에서 6항목은 총 1464편이 조사되었다. 이중에서 634 유형은 535편, 643 유형은 494편이 조사되었다. 도합 1029편이며, 6항목 전체 중에 70.2%에 이르고 있다.

마지막으로 4항목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핀 대로 4항목 '바르고 그르기'는 1차 사업에서 민중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구연하고, 향유한 설화들이다. 그런데 '개정증보' 사업에서는 비록 1순위를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2순위 차지할 만큼 여전히 대중에게 인기가 있고 중요하다고 인식된다. 4항목은 주로 충신, 열녀, 효자, 효부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래서 나라와 임금에 대한 굳은 충성, 살아서나 죽어서나 지아비에 대한 굳은 사랑, 부모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한 겨울에 딸기를

구해오는 효심, 자식을 희생시켜 시어머니의 봉양하는 효부의 희생효 등이 주요한 제재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의 바탕인 충, 효, 열은 조선 시대의 정치, 사회, 도덕의 근본이념이었던 유교의 이념이며 덕목이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미 조선시대로부터 100년의 시간이 지났고, 더 이상 전제왕국국가도 아니며, 나라에서 충, 효, 열을 국가의 통치와 윤리 이념으로 강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개정증보'사업에서 4항목이 2순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4항목 설화들이 추구하는 충, 효, 열의 사상과 가치가 여전히 우리 민족에게 중요한 가치와 덕목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일 것이다.

IV. 결론

1979년과 2008년 2차례 걸쳐 시작된 '한국구비문학대계' 사업은 구비문학을 전공으로 하는 학자와 연구원들이 현지조사를 통해 구비문학 자료를 조사, 채록하고 이를 방대한 자료집으로 집대성한다는 점에서 기념비적인 작업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2008년부터 시작된 '개정증보' 사업이 종결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개정증보'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면서 1차 사업의 자료들과 다각적인 비교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개정증보' 사업을 통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조사된 설화 자료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3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설화 유형의 부침과 경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1차 사업에서는 설화의 8개 항목이 4>2>7>3>5>6>1>8 순서로 자료의 수가 많이 수집되었던 것이 '개정증보' 사업에서는 5>4>6>2>7>1>3>8 순서로 자료의 양이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1차 사업에서 다섯 번째로 대중성이 있던 5항목이 '개정증보' 사업에서는 첫 번째로 대중성이 있는 설화가 되었다는 의미이다. 또한 1차 사업에서 끝에서 두 번째로 비중이 낮았던 6항목 설화가 '개정증보' 사업에서는 앞에서 세 번째로 대중성이 있고 자주 구연되는 설화유형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4항목의 경우 1차 사업에서는 1순위였지만 '개정증보' 사업에서는 2순위로 밀리기는 했으나 30년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대중들에게 각광받는 설화 유형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예전에는 인기 없던 설화가 갑자기 인기를 얻었다거나 예전에는 인기 있었던 설화가 시대가 변하면서 인기가 시들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설화 항목간의 비중과 순위 변동은 항목 본래의 특징과 다른 항목과의 관계 속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5항목의 경우는 지명전설, 지형전설에 해당하는 설화이다. 지명이나 지형이라는 확실한 증거물이 있기에 다른 항목에 속하는 설화들보다 제보자의 기억 속에 훨씬 오래 각인되거나 쉽게 떠올릴 수 있는 특성이 있다. 6항목의 경우는 혼령, 귀신, 도깨비, 제사에 관한 설화들이고, 죽음과 사후세계에 대한 인간의 두려움과 호기심에서 촉발된 설화라고

할 수 있다. 그 기반에는 우리 민족 특유의 토속신앙이 자리 잡고 있어서 사회적 변화에 상당히 보수적이다. 이러한 특성이 6항목에 속하는 설화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자주 구연되는 현상을 불러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5, 6항목의 부상에는 2, 3, 7항목의 급격한 쇠퇴에 따른 반사이익적인 측면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2, 3, 7항목은 전제왕권국가, 신분제 사회 등을 기반으로 한 설화들이거나 서사가 길고 복잡한 설화들이 속해 있다. 정치제도와 사회제도가 완전히 달라지면서 이 유형 설화들은 전승력을 빠르게 잃어간 것으로 추측되며, 자주 구연할 기회가 없다보니 길고 복잡한 서사를 온전히 기억의 창고에서 고집어내기 어려운 것이 2, 3, 7항목 설화의 급격한 쇠퇴를 불러온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4항목의 경우는 순위 변동이 크지 않다. 또 예나 지금이나 대중들이 가장 사랑하고 자주 구연하는 유형의 설화들이라는 것이 판명되었다. 이는 4항목이 충, 효, 열을 주제로 한 설화들이 소속되어 있고, 이러한 유교적 이념과 덕목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 민중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개정증보' 사업 전반기(2008년 11월 1일~2012년 10월 31일)까지 조사된 설화자료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개정증보' 사업의 후반기 설화자료에 대한 분석이 남겨진 과제이다. 연구 방법의 미흡한 부분과 해석의 논리 등을 보완하여 차후 진행될 연구는 보다 효과적이고 타당한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다.